

주일가정예배 순서

2021년 8월 1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엡 4:1-4)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 날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89장 다같이

1.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곤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2.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 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 심히 일어나 소망 끊어 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3.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로마서 8:26-28 인도자

-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설 교 “중보자 성령님”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374장 다같이

1.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꺾일 때 주가 붙드네
 <후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2.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3.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얻은 사람들 항상 붙드네
4.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중보자 성령님”

(로마서 8:26-28)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같은 사람이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이란 기쁜 일, 감사한 일, 잘된 일, 잘한 일, 성취한 일도 있지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실수한 일, 실패한 일, 아픈 일, 낙방, 파혼, 퇴직, 실직, 불황, 이혼, 감옥, 사고, 암 투병, 코로나19 같은 재난도 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다 성령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성령이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 할 정도로 성령의 사역을 자세히 소개한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분은 보혜사로서 위로자와 중보자가 되신다. 사실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믿는 사람은 기도가 막히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런데 곤란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잊어버리는 성도가 있다. 연약하기 때문이다. 즉 마음의 평정을 잃고, 영혼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어떤 고통도 선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그런데 마음이 혼란하고 피곤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마음의 탄식이 일어난다. 이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간구가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향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중보해 주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우리의 연약함에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인 것이 있다. “연약함”이란 ‘힘이 없다’는 의미다. ‘도우신다’는 의미는 편을 들어주신다는 의미다. 나의 수없이 많은 연약함을 성령이 편들어 주신다. 성령께서 “연약함을” 단순히 제거하지 않고 대신 견딜 힘을 주신다. ▶사실 성령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신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7:25). 땅에서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성령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접 간구해 주신다. 기도도 육신적인 활동이 될 때가 있다. 참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기도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기도다. ▶따라서 어떤 환난도 주 안에서 버릴 것이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는 자들은 고난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고난은 우리를 더 온전한 인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준다. 십자가에 비춰보면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정확하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체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